

“중복 연구 지양 지질자료 체계적 정리를”

꽃자왈공유화재단 심포지엄 25년 연구 성과와 과제 짚어 “경계 정립·정보 오류 수정 꽃자왈 토양 별도 명명돼야”

꽃자왈 중복 연구를 지양하고 지질 자료의 객관적·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꽃자왈 공유화재단(이사장 김국주) 주최·주관으로 열린 ‘꽃자왈 연구 25년 그리운 새로운 시작-꽃자왈 연구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통해서다.

이날 ‘꽃자왈의 지질: 투수성 자갈층에서 용암유역까지’ 주제 발표에 나선 박준범 박사(주한미육군국동공병단)는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

를 통해 꽃자왈 지대는 용암 유역이고 아아 용암류, 파호이호이 용암류와 전이형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공존하며 용암류의 정치 과정과 그 후 풍화작용에 의해 생겨난 압괴로 이루어져있는 등 4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지질학적 특징을 종합해보면 꽃자왈 지대는 ‘거력 이상의 암괴가 우세하고 연장성을 갖는 용암유적’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아직도 꽃자왈에 대해 밝혀야 할 사항이 많다”는 그는 향후 과제로 ▷해의 화산지대와 비교 연구 ▷용암류의 분출 시기, 용암류의 마그마 성인적 연구 등 지질자료의 객관적·체계적 정리 ▷제주꽃자왈도립공원 사이트 등 꽃자왈 정보 오류 수정·갱신 ▷꽃자왈 지대(경계)의 정립 ▷꽃자왈

내 정밀 지질지형조사를 제시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송관철 박사는 ‘꽃자왈의 토양’ 주제 발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교래·안덕꽃자왈 토양 특성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송 박사는 “교래와 안덕 꽃자왈 지역의 토양은 토양 발달이 미약해 토양 생성연대가 매우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꽃자왈 지역의 토양은 형태적 특성 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특성이 제주도에 분포하는 다른 토양들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토양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송 박사는 “꽃자왈 지역 토양만의 특성이 그동안 무시되어 왔다”며 “앞으로 다른 꽃자왈 지역까지 토양 연구를 벌여 새로운 꽃자왈 토양을 명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제주 유배인 이야기’ 더 흥미롭게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특별전 ‘낯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와 연계해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6종을 마련해 34회에 걸쳐 운영한다.

전시 기간 관람객들은 수요일마다 ‘큐레이터에게 듣는 유배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유배인의 아틀리에’를 진행한다. 1·3·5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컬러링 엽서 체험, 그리운 사

람에게 편지를 쓰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핸드메이드 현무암, 돌하르방 캔들 만들기로 짜여졌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선 유배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지를 제작 배포해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가족 관람객들은 활동지를 활용한 셀프 전시 투어 ‘유배 탐험대’, 초등 자녀 동반 가족 퀴즈대항 ‘유 퀴즈 온 더 박물관’을 즐길 수 있다. 교사 대상으로는 ‘선생님 박물관 초청’ 교육을 준비했다.

성인 대상 현장 답사도 이루어진다. 특별전 감상 후 조선시대 제주



특별전 맨 끝에 놓인 가상 현실 체험(VR) ‘디지털 세한도’ 한 장면.

관문인 조천포구와 연북정을 시작으로 해신사, 모충사, 오현단 등을 둘러보며 제주에 유배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참가비 무료.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jeju.museum.go.kr) 참고. 문의 064)720-8108.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고훈식 제주어 동시집 발간

고훈식 시인이 ‘아방이영 혼뒤 읽는 제주어 동시’란 제목으로 국보출판사에서 제주어 동시집을 내놓았다.

이번 동시집에는 60여 편이 실려 있다. 제주어로 쓴 동시 옆에 표준어로 옮겨놓은 작품을 나란히 수록했다. 시인은 “유년 시절에 느꼈던 정서에 기인한 동시집”이라며 “제주 작가들이 제주어를 문학작품으로 발굴하고 부활하는 등 소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복인 수필집 ‘살아가라 하네’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정복인 작가가 수필집 ‘살아가라 하네’(정은출판)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꽃집이 울다’, ‘초록빛 가슴으로’ 등 6부로 나뉜 60여 편을 담았다. ‘조그만 마당’을 사유의 공간으로 삼아 자연에서 느낀 신의 숨결을 포착해냈다. 우주를 생각하면 티끌이지만 해와 달과 별, 꽃과 열매, 풀벌레, 새와 나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다.

구순 양성보용 자서전 출간

제주 양성보용이 자서전 ‘언저리에 서서’(도서출판 도훈)를 내놓았다.

1929년 제주도 노형동에서 태어난 저자는 일본에서 성장했고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1948년 4·3 당시 경찰 총격으로 부상을 입는 등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는 6·25전쟁, 군사재판, 대규모 도장공사, 작명학 공부 등 유년기에서 현재까지 5부로 나뉜 지나온 생애를 풀어냈다.

이번주(12월 2-12월 8일) 무대 & 미술

교향악에서 춤까지... 5개 도립예술단 ‘큰 울림’

자치도 이래 첫 합동무대 예술단별 기존 작품 소개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공연에 참여하는 제주교향악단.

제주지역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한 무대에 오른다. ‘큰 울림’이란 이름으로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250여명 단원이 출연하는 합동 공연을 펼친다.

2006년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5개 공립예술단이 도립예술단으로 묶였지만 전체 예술단이 참여하는 합동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준비 기간 탓에 실질적 합동 공연은 내년을 기약했다. 이번에는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이 뮤지컬 ‘만덕’ 주제곡과 베르디 ‘개신 행진곡’ 등을 들려주고 도립무용단은 현무암 소재 창작무 ‘뜸-검은 돌의 호흡’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

▶어린이 성탄뮤지컬 ‘루돌프와 크리스마스 캐롤’=12월 3일 오전 10시20분, 11시10분 문예회관. 010-8710-9533.

▶서귀중앙양중 오케스트라 연주회=12월 3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30-5124.

▶해병대 군악대 음악회=12월 3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안덕중 오케스트라 연주회=12월 4일 오후 6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35-7700.

▶라파플루트앙상블 연주회=12월 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3697-1655.

▶트롬본닉 트롬본앙상블 연주회=12월 5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4·3 평화합창단 정기공연=12월 6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8435.

▶노퐁당당 제주시니어예술제=12월 6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253-4351.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제=12월 6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2686-5467.

▶숙명가야금연주단 ‘가야금 포유’=12월 6일 오후 7시 제주아트

센터. 728-8953.

▶국립합창단 초청 헨델의 ‘메시아’=12월 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제주체임버코랄 연주회=12월 6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이경식의 마임 20돌 콘서트 ‘숨결’=12월 6일 오후 7시30분, 12월 7-8일 오후 5시 아트락소극장. 010-7145-0835.

▶세계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2월 7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8969-2055.

▶퍼포먼스단 몸짓 ‘그게 뭐라고’=12월 7일 오후 3시와 7시 미예랑소극장. 755-0904.

▶김희숙의 제주춤 60년 ‘일이며 놀이며 춤이며’=12월 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3691-6659.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공연=12월 7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 710-3205.

▶비바 라 비다 무비콘서트=12월 8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6602-3123.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12월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500-5658.

▶대금정악 보존회 청소리 창단 공연=12월 8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3086-3513.

▶제주창작 합창 페스티벌 ‘창작 합창의 밤’=12월 8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3355-3567.

<전시>
▶마주보기동화그림회 전시=12월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3061-9998.

▶김규승 초대전 ‘생명의 노래’=12월 2-10일 연갤러리. 010-3548-9810.

▶오봉국 서예전=12월 2-2010년 1월 31일 감귤박물관. 767-3010.

▶제주대 미술학과 졸업작품전=12월 3일까지 이아. 800-9330.

▶제주·오키나와 교류전=12월 5-1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423-8897.

▶흙, 물, 불 기억을 담다!-골대장 김경근 제주그릇전 12월 5-14일 이아. 800-9300.

▶제주특사사진가협회전=12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상록사진학회전=12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빛의 벵커 ‘반 고흐’=12월 6-2020년 10월 25일. 1899-3929.

▶제임스 터릴 전시관 개관=12월 6일부터 본대박물관. 792-8108.

▶제주를 탐하다-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12월 7-12일 문예회관. 710-7633.

▶창작공동체 우리 ‘2019 탐라순력’=12월 7-12일 문예회관. 710-7633.

▶현인갤러리 서경희 초대전 ‘바다 이야기’=12월 7일까지. 747-1500.

▶이진아 개인전=12월 8일까지 비아아트. 722-3070.

▶홍시아 개인전=12월 9일까지 갤러리바라. 010-7204-4428.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쉘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쉘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쉘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